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의지함 (역대하 13:13~22),

하나님 찬양 드리기

-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찬송가 435 / 통 492)

Focus,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역대하 13:13~2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됩니다. 본문은 유다 2대 왕 아비야 때 북 이스라엘을 상대로 치른 큰 전쟁을 기록합니다. 아비야는 군사력이 두 배나 앞서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 연설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밝힙니다. 난봉꾼 같은 북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유다를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북 이스라엘 군대가 앞 뒤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요?(13~17절)

1-2. 적용과 나눔 | 사방이 막힌 것같이 괴롭고 힘들 때, 대체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은 남유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나요?(18절) 그 후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나요?(20절)

2-2. 적용과 나눔 |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나요? 슬픔과 좌절이 소망과 비전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이십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세한 군사력과 수많은 전쟁 경험, 전술 등을 앞세워 유다를 앞뒤로 포위함으로써 승리를 목전에 둡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은 환난, 곤고함, 위험 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최우선으로 구할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나 대적도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대하 13:18

Copyright to 생명의 삶 11월호